



21일 열린 강석희 시장(가운데)의 재선 후원기금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현식 기자>

9/22/09 2605

강석희 시장 '다시 한번'

후원금 행사...본격 재선 체제 돌입

강석희 어바인 시장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했다.

강 시장은 21일 LA에 있는 박병철 에베레스트 트리딩 회장 자택에서 내년 11월에 있을 재선을 준비하는 후원기금 모금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재선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기금모금 행사는 장소를 제공한 박 회장을 비롯해 정진철, 홍명기, 조병태, 고석화, 스칼렛 엄, 은석찬, 명원식, 남문기, 김성철, 서영석, 노명수, 이창엽, 김보환, 김용환, 김광남, 써니 김, 윌리엄 민, 토머스 정,

리처드 S. 박, 허만 채, 김용현, 조니 김, 리처드 최씨 등 LA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대거 후원자로 참석했다.

또 가주조세형평국 미셸 박 위원(3지구)도 초청연사로 나와 강 시장의 재선 캠페인에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석한 강 시장은 "새로운 캠페인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해줘 힘이 난다"며 "5년 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재선 캠페인도 최선을 다해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역 사회에서의 평가가 좋아 기쁘다"며 "경제위기로 모든 커뮤니티가 힘든 만큼 어바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준비한 박병철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을 위해 다시 한번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또 앞으로 선거 때까지 지역 한인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강시장은 지난 해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25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으며 어바인 시의회 선거 사상 최다 액수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장연화 기자